



이 자료는 지난 1월 22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건의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편집자 주 -

석유제품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교통세(특소세)인하 건의

대한석유협회

최 근 베네수엘라의 파업 및 미국의 이라크 공격 계획으로 서부텍사스 중질유(WTI)의 가격이 34달러를 넘어섰고, 국내 도입원유의 기준 유종인 두바이 원유의 가격도 28달러를 넘어서는 등 국제 유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음.

이러한 고유가 상황의 지속은 국내석유제품의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모든 산업계의 원가부담이 가중되어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 되며, 지난 연말부터 얼어붙기 시작한 소비심리까지 겹쳐 기업체의 투자욕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음.

또한 미국경제의 불확실성으로 환율까지 하락하고 있어 수출전선에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귀 부에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휘발유의 세금 비중은 약 70%에 이르고 있으며, 이 비중은 영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에 해당됨. 이는 국

민소득 등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석유제품을 사용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경제주체들은 외국의 경쟁자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임. 만일 이러한 고유가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호전을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물론 귀 부를 포함한 정부도 이러한 고유가 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책의 실시가 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현행 30% 내외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 석유제품의 교통세(특소세)를 조정하시어 각 경제주체가 이번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